

‘순천형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 22개 기관 동참 협약체결

소방서·세무서·상공회의소·청암대·제일대·농협·광주은행 등 참여
“순천 공동체에 봄바람 같은 따스함 불어올 것...적극 동참 해주길 부탁”

순천시는 최근 순천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과 함께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방서, 세무서, 상공회의소 등과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 등 교육기관, 농협,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22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순천소방서장과 농협중앙회 순천지점장은 22개 기관 대표로 동참 협약서를 낭독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앞장서 선결제 권분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14일, 민간단체와 1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착한 선

결제 권분운동 확산에 불씨를 당겼다. 특히 순천시청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복지포인트, 재난지원금 등을 선결제하며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권분 꾸러미로 상정되는 권분운동 시즌1, 마스크 나눔 행사였던 권분운동 시즌2에 이어, 급

여생활자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결제하는 이번 시즌3 권분운동은 순천 공동체에 봄바람 같은 따스함을 불어올 것이다.”며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코로나19 위기대책으로 ‘순천형 권분운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끼니때우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먹을거리 등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권분가게도 개소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여수시, 옥수수 3기작 재배 개발...“여수시만의 품종 만든다”

조기출하·냉해예방·안정적인 가공원물 확보



여수시가 대한민국 남부지방 거점 ‘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향토산업 육성)’를 위해 옥수수 3기작 재배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심여수 옥수수 3기작 재배기술 개발은 강원도 등 타지

역과 차별화된 제품 고급화를 위해 여수시만의 품종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판로 선점을 위해 6월 중순에서 5월 하순으로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서리·저온 등 냉해에도 안전하게 생산 가능한지 시험재배하며, 안정적인 가공원물 확보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공적인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양면 2농가와 돌산읍 2농가 등 총 4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일 첫 파종도 마쳤다. 시험재배 농가에서는 옥수수 파종 및 육묘(묘 기르기), 퇴비와 비료 살포, 두둑 만들기, 정식, 비닐멀칭+타널재배(노지) 또는 하우스재배, 적기수

확 등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가을 재배를 통해 3회 수확하는 3기작 실증재배를 시도한다. 특히 시는 옥수수 싹품종 보급을 통해 기존 재배품종과의 숙기, 당도, 가공적성 등을 비교분석해 여수시만의 특화된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기작 재배기술 개발과 싹품종 보급을 통해 타 지역 옥수수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주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여수 옥수수’가 선정돼 올해 대비 1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나선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설 대비 환경 분야 특별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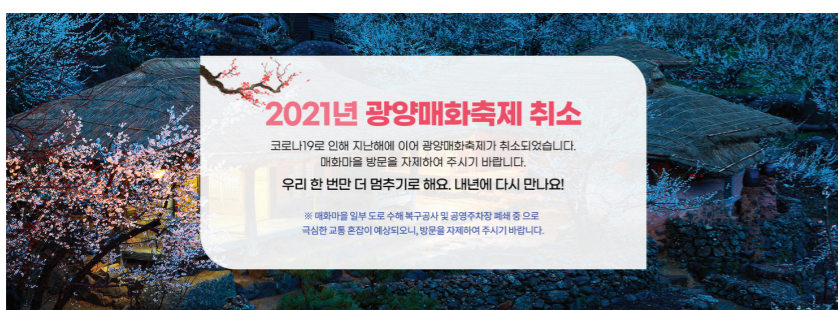
쓰레기 신속처리·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등 일제 점검

보성군이 설 명절에 대비해 환경 분야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 분야 특별 관리 대책을 통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적체, 환경오염 사고 및 수돗물 급수 차질 등 비상 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일전까지 지방상수도 및 관역상수도 관련 시설물인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취·정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연휴기간 동안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방역과 시설 관리를 위해 △내·외부 청결상태, △화장지·손세정제 비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명절 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안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보성강 등 주요 하천 순찰도 예정돼 있다.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보성=김택순기자

광양시, 매화축제 취소하고 방문 자제 당부

매화마을 주차장 전면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조기종식에 총력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광양매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 매화마을 방문 자제 당부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

선으로 판단해 2021년도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이은 매화축제 취소로 타격이 큰 농가를 위한 온라인 판매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매화마을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을 통한 전방위 홍보로 방문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취소에도 불구하고 상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매화마을 일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

을 강화한다. 또한,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품바소음, 불법 음식점 강력단속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양매화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한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매화마을 방문 자제 요청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내년에는 광양매화축제가 열려, 누구나 자유롭게 향긋한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름에 잠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유통채널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매일 가공식품 판매를 추진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고흥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전국 최대 지원

고흥군은 최근 벼농사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인 벼멸구, 먹노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 20억원 규모의 벼 육묘상자처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모판 1회 처리로 벼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사전예방·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벼 재배기간 중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효과가 탁월한 약제로 쌀 안전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농업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4월초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벼 생육초기에 방제효과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육묘상자처리제 지원과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